



전남·경남 관광재단-부산관광공사 협약

전남관광재단이 부산관광공사 대회의실에서 부산관광공사, 경남관광재단 3개 기관 대표와 '남해안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3개 기관이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광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발굴과 광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시·도 협약사항 추진 구체화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브랜드, 관광상품 공동개발 △남해안이 글로벌 신해양 관광·휴양 중심 거점이 되기 위한 사업 발굴·추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하동세계차박람회 성공개최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 등이다. 박간재 기자



호남대, 일본 문화산업 교류&생태탐방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원장 김덕모)의 '차이나 최고경영자과정(CHAMP)'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오사카 일대에서 제5기 CHAMP 일본 문화산업 교류 및 생태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 (사진)

13일 호남대학교에 따르면 CHAMP 제7기 원우 20여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이번 연수에서 세계 최대 목조 건물 동대사, 사슴공원, 청수사, 금각사, 선종사원인 료안지, 지진으로 파손된 모습이 있는 메모리얼 파크, 바다를 매립하여 완공된 고베항 메리켄파크, 일본의 3대 명성 중의 하나인 오사카성, 오사카 최대 변화가인 신사이바시와 도톤보리, 일본의 3대 차이나 타운 고베의 난카이치를 둘러보며 일본 속 중국문화를 돌아보고 다양한 역사와 독특한 민속문화를 체험했다.

CHAMP과정은 한국과 중국의 석학과 전문가들의 오프라인 강좌와 중국연수 등으로 구성되고, 오는 15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고도비만 수술 본격 개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 위장관외과, 가정의학과, 내분비대사내과, 재활의학과, 영양팀으로 구성된 비만 치료 다학제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비만환자 치료에 나섰다. (사진)

13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그동안 호남지역은 3차 병원급의 비만 치료센터가 없어 고도비만 환자들이 주로 수도권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치료목적의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 이후 비만 수술 전문 인증의 획득 및 전문 시설 장비 구축 등 비만 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시스템 구축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체질량지수 35이상의 고도비만 환자나 체질량지수 30이상인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동반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암 환자처럼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농신보 나주센터 보증잔액 7000억 달성

농협광주본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나주권역보증센터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보증잔액 7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농신보 나주센터는 2002년 출범해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어업인이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 주는 기관이다. 보증잔액기준 2013년 4000억원, 2017년 5000억원, 2019년 60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2022년말 기준 7000억원을 달성했다. 농신보 나주센터는 나주시를 비롯한 영암군, 함평군 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매년 1200억원 규모 순신규 농신보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길조 센터장은 "올해도 1500억원 규모 순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장년창업농 및 스마트팜 지원 등 미래 첨단 농업 육성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 보증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동강대 간호학과 아프리카 의료 봉사활동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의료취약지인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한층 성장한다. (사진)

13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간호학과(학과장 정은서)는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의 부시아에서 국세관 교수와 임소정(4년), 채선하(2년) 등 5명이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동강대 의료봉사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열흘간 광주지역 의료진, 의대·약대 학생 등 30여 명과 함께 외과 수술 23건, 2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외래 진료, 치솔질과 손 씻기 등의 보건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의료 활동 외에도 우간다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과 팔찌 만들기, 스포츠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펼쳤다.

특히 동강대 간호학과는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의 '베데스다 병원'과 협약을 맺고 봉사활동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노병하 기자

노윤희 aT 광주전남본부장 임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노윤희(사진) 전 분사 수급관리처장이 13일 임명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노 본부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원광대 무역학과,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을 나왔다.

지난 1992년 aT에 입사해 분화부장, 두류부장, 홍보실장, 수급관리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노윤희 본부장은 "농수산식품의 생산과 수매·비축의 최대거점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중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ESG(환경·사회적 책임·거버넌스) 실천, 현장·안전관리 강화, 업계 불평 해소를 통해 농수산식품산업과 지역경제가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7년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56년 역사를 지닌 준정부기관이다.

식량안보 강화, 농산물 수급안정, K-Food 세계화, 직거래·온라인 유통 활성화,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광주축산농협 '마복동 종합타운' 오늘 착공



광주축산농협 종합타운이 본격 조성된다.

광주축협은 14일 오후 3시 서구 마복동 부지(172-8)에서 '마복동 종합타운' 기공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400여억원이 투입되는 종합타운은 지하-지상 3층 규모, 4795.9㎡ 부지(1451평)에 연면적 5701.2㎡(1725평) 규모로 조성한다. 타운에는 금융 점포와 하나로마트, 축산물 작업장 및 창고,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광주축협은 종합타운 조성 부지를 지난 2020년 매입한 뒤 이달 시공사를 선정,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는 8월로 예정하고 있다.

김호상 조합장은 "광주축산농협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과 고객이 보내준 성원 덕분에 숙원사업인 마복동 종합타운을 착공하게 됐다"며 "우리 농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동부소방, 구급 수혜자 가족 감사 인사 받아

광주 동부소방서는 최근 기상악화를 뚫고 긴급이송돼 무사히 치료를 받고 회복한 환자와 가족이 구급대원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폭설이 내린 지난해 12월22일 동부소방서에는 뇌출혈 진단을 받은 환자 A씨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을 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기상악화를 뚫고 환자를 광주에서 전북 원광대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 이후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해 정상적으로 퇴원했다.

이후 건강을 되찾은 A씨는 "어려운 상황에도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보호자와 함께 직접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송민영 동부소방서장은 "17년만에 호남 최대 폭설이라는 기상악화 등 어려운 구급현장 속에서도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킨 구급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동부소방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빛고을전남대병원 개원 9주년 기념식 성료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박용욱)이 개원 9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병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사진)

13일 빛고을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병원 2층 강당에서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박용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 윤택림 전임원장, 이신석 전임원장, 김재형 전남대치의학전문대학원장, 박형선 남구보건소장 등 본·분원 주요보직자와 직원, 외부인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용욱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한 값진 경험이 있는 만큼 직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지난 2020년 2월 21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받고, 2021년 12월 27일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정 후 현재까지 코로나환자 입원치료환자 수(2023년 1월말 기준) 중등증 2710명, 중증환자 307명 등 총 3017명을 치료해 지역 감염병 치료와 확산방지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7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21년(제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에서 국립대병원 중 1위, 전국 종합병원 중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직접 입원한 환자들이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병원인지를 묻는 '타인에게 추천 여부'에 대한 질문 결과 빛고을전남대병원 93.59점으로 전체 평균인 80.49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노병하 기자